

5년만에 정권 내준 민주당 지도부 총사퇴·비대위 전환

송영길 대표 "패배 책임지고 사퇴"
친문·비문 책임론 충돌뎀 치명상
180석에 가까운 거대 야당
단일대오 지방선거 반전 꾀해야

전환과 원내대표 선거를 조기에 실시하는 안을 보고한 뒤, 추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비대위 출범이 가시화되면서 민주당 내부의 뒤통수한 분위기가 일단, 의총을 통해 비대위 구성 및 전당대회 개최 시기 등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당장 석달 앞의 지방선거가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향후 진로에 대한 노선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거 패배 원인과 책임을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공방의 양상도 달라질 예정이다. 대선 패배의 요인으로 문제인 정부의 실정과 민주당의 독선이 지적된다면 당내 친문계인(친문)인영 대 비문(비문계인)인영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대선 패배가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경쟁력 측면에 원인이 있었다는 목소리도 있어 책임론을 둘러싼 논란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특히, 오는 25일 이전 실시되는 원내대표 경선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새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 당을 이끌어가게 되므로 이를 차지하기 위한 계파 간의 신경전이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럴 경우, 아직도 정심을 못 차겠다는 민심의 파고는 눈치를 받으면서 지방선거 패배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

다른 한 편으로는 대선에서 패배하기는 했지만 초반빙 승부를 펼친 만큼 철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전열을 정비한다면 지방선거 판을 뒤집을 수 있어 내부 합의를 통해 민심의 눈높이에 맞는 비대위 구성, 전열을 정비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여전히 180석에 가까운 거대 정당이라는 점에서 민심을 면밀히 살피고 정경 범안들을 밀어붙이면서 여론의 반전을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지방선거 공천 문제도 갈등의 불씨 중 하나로 지목된다. 계파 간 담합 등을 통해 자기 사람 챙기기에 나설 경우, 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민주당은 대선 기간에 이번 지방선거 공천에 계량화가 애매한 '대선 기여도'를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 민주당 복당 인사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의 경선 및 공천 등을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선 패배에 따라 민주당에게는 민심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과제"라며 "특정 계파보다는 중도적 인사들로 비대위를 구성하고 지방선거에 차분히 준비한다면 대선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인수위원장 안철수·김병준 교수 등 거론

인수위 200명 넘지 않을 듯
당선인 비서실장 장제원 의원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이 주목된다. 윤 당선자가 국민 통합을 강조한 만큼 인수위 구성이 타당성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수위 업무는 정부의 조직·기능과 예산 현황 파악, 새 정부의 정책 기조 설정 준비, 취임 행사 관련 업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 등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 규모가 180여 명, 박근혜 당선인 인수위가 150여 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윤 후보 인수위도 200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에서 선출돼 곧바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인수위를 꾸리지 못했다.

정치권에선 윤 당선자가 이번 주말 휴식을 취한 뒤, 다음 주 본격적인 인수위 구성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 당선인을 보좌할 비서실장으로는 장제원 의원이 확정됐다. 윤 당선자는 이날 오후 12시쯤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과 접견한 자리에서 장제원 의원이 비서실장으로 확정됐음을 밝혔다. 이날 유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를 전하면서 "취임 전까지 대통령과 당선인이 연락해야 할 일이 있

을 수도 있으니 정무수석과 핫라인처럼 연락하시면 된다"고 하자 윤 당선자는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이 수석과 계속 통화하시면 되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윤해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울 정도로 윤 당선자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그는 윤 당선자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윤 당선자의 '전권 대리인'으로 몰릴 협상을 주도했다.

윤 후보는 인수위원장과 인수위원 인선을 국민 의당 안철수 대표와 협의할 가능성이 높다. 윤 후보는 지난 3일 안 대표와 야권 후보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인수위 구성부터 공동정부 구성까지 함께 협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윤 후보는 인수위원장과 위원 인선은 늦어도 오는 25일까지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인수위원장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우선 꼽히고 선거대책본부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 등이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외부의 국민통합형 인사가 영입되지 않는다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4선의 권영세 사무총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 후보로 유력하다. 부위원장은 당선인과 인수위원장을 보좌해 사실상 실무를 총괄한다.

이런 가운데 윤 후보는 늦어도 다음 달 초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전망이다. 이어 총리 후보자와 상의를 거쳐 4월 중순 각부 장관 후보들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광주·전남 두자릿수... 보수정당 역대최고 호남 득표

공약 실천 등 진정성 보여야
국민의힘 호남지역 외연 확장

이번 3·9대선에서 국민의힘은 정권교체와 함께 '호남 선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국민의힘은 불모지인 광주와 전남에서 윤석열 후보 당선과 함께 두 자릿수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정치적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광주에서 12.72%, 전남에서 11.44% 득표율을 기록했다.

역대 대선에서 호남 지역 보수 정당 후보의 두 자

릿수 득표율은 당선 공식으로 여겨져 왔다.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광주 7.76%, 전남 10%의 득표율로 보수 정당 후보로는 최고 기록을 세웠다.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광주 8.59%, 전남 9.22%의 득표율로 두 자릿수에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했다.

두 전직 대통령을 제외하고 나머지 보수 정당 후보의 지역 득표율은 1~5% 수준에 그쳤다.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선, 지방선거, 총선에서 잇달아 패배한 뒤 보수와 영남 지역에 갇혀있는 당의 외연 확장을 위해 호남의 문을 두드렸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호남 민심 이반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5·18 민주화운동 폄훼·왜곡에 사과하

고 5·18 정신을 이어받겠다며 호남 민심을 끌어안았다.

특히 젊은 층에서 인기가 높은 이준석 대표는 수시로 지역을 찾아 호남 민심을 챙겼다.

이 대표는 광주에서 사전투표를 하고 선거운동 마지막 날에도 광주에서 지원 유세를 하며 젊은 층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이 대표는 선거가 끝난 뒤에서 당선 인사를 위해 광주를 1박2일 일정으로 방문했다.

지역 정치권 한 인사는 "국민의힘이 그동안 광주·전남지역에 제2지역구를 지정하고 현역 국회의원을 배정했지만 실질적인 활동은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대선 공약도 앞으로 얼마나 실천을 하느냐에 따라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고흥군 청년 농촌보급자리 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 공고

- 모집개요
 - 시 설 명: 고흥군 청년 농촌보급자리 임대주택
 - 신청기간: 2022. 3. 2.(수) ~ 2022. 3. 18.(금), 18:00 까지
 - 신청대상:
 - (공통) 만19~39세 이하 귀농·귀촌 청년 세대주(1983년 출생자부터) 및 신혼부부, 관외 거주자(공고일기준)
 - (단독주택) 취학아동을 한 명 이상 둔 가정, 신혼부부
 - (쉐어주택) 1인 청년 세대주
 - 위 치: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관리 1160-2번지 일원
 - 모집호수: 16호(단독주택 9호, 쉐어주택 7호)
 - 임대기간: 최초 2년, 갱신 4회(최장 10년 거주)
 - ※ 입주 예정일: 2022년 6월 중(현장 상황에 따라 입주 일정 변동 가능)
 - 주택유형별 정보 및 임대가격

구 분	공급호수	모집 규모	임대보증금	임대료(월)	비고
단독주택	4호	84㎡	20,000,000원	200,000원	1층
	5호	85㎡	22,000,000원	220,000원	2층
쉐어주택	7호	55㎡	10,000,000원	100,000원	2층



※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던 슬라브목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목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스틸방수시공모습

현재시공모습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집입니다.

062)531-3530, H. 010-9229-3530